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 구조모형*

오진아¹⁾

1) 인제의대 간호학과 조교수

= Abstract =

A Structural Model on the Quality of Life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Oh, Jina¹⁾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nstruct a structural model to explain the quality of life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Method:**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232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living in Busan.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June to Oct. 2006. Data analysis was done with SAS 9.13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PC-LISREL 8.52 program for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Results:** The findings found that the fit of the hypothetical model to the data was good, but considering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statistical significances of parameter estimates, paths and variables of the model were modified by excluding 2 paths. The Modified Model with 17 paths showed a good fitness to the empirical data ($\chi^2 = 15.492$ (df=11, p=.161), GFI=.985 AGFI=.940 NFI=.982 RMSR=.037 RMSEA=.042). Health status, health problems, economical status, life events, caring stress, caring 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quality of life in the grandmother caring their grandchildren, but of these variables, self-esteem was the most essential factor. All predictive variables of quality of life together explained 63.9%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derived model in this study was confirmed to be proper in explaining and predic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grandmothers caring their grandchildren.

Key words : Grandmother, Grandchildren, Caring, Quality of life

주요어 : 조모, 손자녀, 양육, 삶의 질

* 본 연구는 (주)태평양학술문화재단의 2005년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것임

* *The present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AMOREPACIFIC Research & Cultural Foundation*

교신저자 : 오진아(E-mail: ohjina@inje.ac.kr)

투고일: 2007년 2월 16일 심사완료일: 2007년 3월 29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Oh, Jina(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Gaegum2-dong, Busanjin-gu, Busan, Korea 614-735

Tel: 82-51-890-6833 Fax: 82-51-896-9840 E-mail: ohjina@inje.ac.kr

서 론

과거 한국사회의 경우 조모는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 및 훈육을 맡는 역할을 담당하여 손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참여하였다. 조모는 손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이었으며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여 손자녀의 생활과 놀이를 주관하고 무릎학교 원장으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였다(Yoo, 1994). 근래에도 많은 취업여성이 경제적인 부담감이나 양육자에 대한 신뢰 등의 문제로 육아시설이나 타인보다는 자녀의 친조모 혹은 외조모에게 자녀양육을 맡기고 있다(Dongailbo, 2001). 가족의 부양 및 육아에 대해 가정 내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수행해 온 한국 사회의 전통을 고려할 때, 조모와 같은 가능한 가족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일부 조모는 단순육아에서 더 나아가 손자녀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Dongailbo, 2002), 장차 취업모 가정내에서 조모의 적극적인 역할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기에 접어든 조모는 노화의 과정과 자신의 건강을 점검함과 동시에 지나온 삶의 과정을 통합하고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기도 한다. 그래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보다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Oh, 2006-a).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와 양육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Oh, 2006-b). 뿐만 아니라 손자녀 양육에서 증가된 스트레스는 적절한 돌보기와 가족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손자녀를 돌보는 행위가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손자녀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나아가 가족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아동의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최적의 가족 기능과 아동의 성장발달 증진의 차원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을 관찰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개인의 삶의 질은 만족, 행복, 긍정적 정서 등의 개념이 내포된 주관적 안녕 상태로서 한 개인이 늙어간다는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삶의 만족을 포함한다(Lee & Lee, 2002). 조모의 주관적인 인지에 따른 삶의 질은 궁극적으로 조모 자신의 일생에 관한 행복 및 생의 목표 달성과도 직접 연결되며, 노년기의 삶의 질 수준 역시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동안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저소득층 조손가족 내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심리적 부담감(Lee, S. H., 2005)을 포함한 심리정서적 안녕(Kim, 2002) 등의 조사로 제한적이었고, 노년기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

구들은 단편적이며 분산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만족과 사회기능적 영역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질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지각하는 건강상태, 건강문제와 같은 신체적 요인과 경제적 여건, 생활사건 등의 환경적 요인,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생활만족도 등의 정서적 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알려진 삶의 질의 제한된 영역을 보다 확장하여,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연구결과를 통합하고 요인들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인의 삶의 질 모형을 검증하고 구축함으로써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와 손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통합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구조모형을 구축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필요성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설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한다.
- 가설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부합도 검증을 통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수정모형을 제시한다.
-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인과관계 및 중간변수에 의하여 매개되는 간접효과와 총효과를 조사한다.

연구의 개념틀 및 가설 모형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의 고찰과 본 연구자가 시행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연구의 개념틀을 정하고 가설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4개의 외생변수, 즉 건강상태, 건강문제, 경제적 여건, 생활사건경험, 그리고 3개의 내생변수, 즉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생활만족도로 구성된다.

우선 외생변수인 건강상태, 건강문제는 신체적 요인으로, 경제적 여건과 생활사건경험은 환경적 요인으로서 각각의 변수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손자녀를 돌봄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생활만족도를 정서적 요인으로 두고 내생변수로서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하

었다. 외생변수가 정서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과 정서적 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위한 간호중재의 실제적 지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내생변수이면서 삶의 질의 외생변수인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과 생활만족도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정서적 요인을 매개변수로 가정한 것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은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그리고 생활만족도가 일반적인 조모의 삶의 질과는 차별화되며 실제적으로 본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생활만족도 간의 경로는 따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문헌을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높은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으나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는 연구자마다 일치하지 않고 있다. 국내 많은 연구자들은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개념에 기초하여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들고 있고,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Kim, M. S., 2005).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양육효능감이 낮다는 연구결과(Kim S. H., 2005; Ahn, 2001; Choe, 2001)와 양육효능감이 높으면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상충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보다는 오히려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자의 양육태도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생활만족도 역시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높은 상관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독립적인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한편 인구학적 특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련성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인구학적 변수는 대상자의 고정변수로 중재적 측면의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변수들이 모두 모형에 들어가는 경우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한 예측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의 인과적 추론과정을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을 보다 잘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간명한 모형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가설모형을 요약하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생활사건경험의 정서적 요인은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건강상태, 건강문제, 경제적 여건, 생활사건경험은 정서적 요인을 거쳐 간접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총 19개의 가설적 경로를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의 가설적 구조모형을 도출하고 모형의 부합도와 가설들을 검증하는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로 설계되었다.

연구 대상

손자녀의 가족과 함께 기거하거나 근거리에 살면서 손자녀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는 친조모 혹은 외조모 중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한글을 알고 질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알고 자의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분산 구조분석에서 연구대상자 수의 선정은 표본추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가 미지수의 수보다 5-10배가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모델의 크기에 상관없이 적어도 200 이상이어야 부합지수가 올바른 결론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근거하여(Bentler, 1995) 총 300부를 배부하였고 회수되지 않은 것과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32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절차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자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회의를 거쳐 도구 선정, 예비조사, 본조사의 진행과정으로 구조화되었다. 도구 선정 후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해가 어렵게 표현된 문항과 신뢰도, 타당도가 낮은 문항 및 긴 응답시간을 요하는 도구 등은 일부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1개 광역시 내 4개 구에서 연구의 접근가능성과 수용성을 고려하여 2006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4개구 내 보건소를 방문하는 조모를 일차적으로 선정하였으며,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방문하였고, 간호사, 교사 등 자녀 양육을 시모나 친모에게 의뢰한 전문직 여성의 가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각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자가보고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한 후 설문지 작성과정에서의 의문점에 답하였으며, 특히 70세 이상의 조모에게는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질문내용과 표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설문지 표지에 기록하여 조모 자신과 손자녀의 건강관련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연구 도구

● 건강상태 측정도구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지각에 대한 평가로서 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개발한 Health Self-rating scale을 Lee, Kim, Sun과 Cho(2001)가 수정보완하여 현재의 자신의 건강상태, 1년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3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저 3점에서 최고 15점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다.

● 건강문제 측정도구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구체적인 건강문제를 5점척도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건강문제와 만성질환, 노년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노화 등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다루었으며 Kim(2002)의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 7문항에 2문항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 이다.

● 생활사건 경험 측정도구

McCubbin(1979)의 생활사건 목록을 근간으로 Jang(2003)이 한국가족생활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것을 사용한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 중에서 중년기 초기에 해당되는 3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17문항을 선택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각각의 문항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임을 감안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간호학 교수 2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90$ 이다.

●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rnic & Greenberg(1990)가 개발한 PHD(Parenting Daily Hassles)를 번역한 Ahn(2001)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모를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2문항을 제외하고 총 1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간호학 교수 2인과 국문학 교수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다.

● 양육효능감 측정도구

양육효능감의 측정은 Floyd, Gilliom & Costigan(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Ahn(2001)이 번역하고 수정한 도구를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문구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간호학 교수 2인과 국문학 교수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4점 likert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이다.

●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생활만족도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최근에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Lee, S. H.(2005)의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여러 가지의 생활전반에 느낄 수 있는 생각과 감정, 경험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중간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부호화하고 척도의 방향을 일치시켰다.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의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에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3$ 이다.

● 삶의 질 측정도구

스미스플라인 비참의 QOL 척도(SmithKline Beecham Quality of Life: SBQOL)로서 한국어판으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Yoon, Kook, & Lee, 1998), 총 문항수는 23개이며, 유능감 7문항, 정신적 안녕 4문항, 안정성 6문항, 신체적 안녕 4문항, 활력 2문항 등이다. 각 문항은 양극단이 대비되는 문장으로 1점에서 10점까지 계수화된 척도로 되어있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10점 척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발견되어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다.

자료분석방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AS 9.13 통계패키지 프로그램과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 8.5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변수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 연구변수의 정규분포성에 대한 검정은 왜도, 첨도 및 카이자승 통계량을 이용하였다.
- 연구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cy로 분석하였다.
- 가설 모형의 변수들 간의 부합도, 가설 및 LISREL 입력자료는 공분산행렬을 구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9.3세로서 50대가 107명(46.12%)으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94명(40.52%)이었으며 70대 19명(8.19%),

40대 12명(5.17%)의 순이었다. 가족의 월평균수입은 151-200만원이 가장 많았고(18.97%), 100만원 이하는 12.93%, 400만원 이상은 6.90%이었다. 결혼상태는 현재 배우자와 있는 경우가 171명(73.71%)로 많았고, 나머지는 별거(1.29%), 사별(22.84%), 이혼(1.29%), 기타(0.86%)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었다. 자녀가족과 거주하는 경우가 115명(49.57%)이고 혼자 살면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도 17명(7.33%)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124명(53.45%)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는 경우는 47명(20.26%)이었다.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기 이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우는 177명(76.29%)이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회사원, 자영업, 시간제 부업의 순이었다.

손자녀 돌보기와 관련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돌보는 자녀의 수는 1명이 154명(66.36%)로 가장 많았고 3명 이상인 경우도 10명(4.31%)이었다. 손자녀의 평균연령은 만5.4세(±3.78)이었다. 손자녀의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거나 매우 좋은 경우가 208명(89.65%)이었고, 매우 나쁜 경우는 6명(2.59%)이었다. 손자녀를 돌본 시기는 평균 42.8개월(±39.38)로서 2년(13~24개월)이 55명(23.7%)로 많았고, 1년(4~12개월)과 3년(25~36개월)이 각각 46명(19.83%)이었으며, 6년 이상(61개월 이상)은 51명(21.98%)이었다. 평균 3~4년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를 돌보기 시작한 이유는 '손자녀의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라는 대답이 221명(95.2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기타 이유로는 손자녀 아버

지의 가출 또는 장기간 생사불명, 수감, 약물복용 등이 있었다. 손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수고비 수혜 정도를 살펴본 결과 11~30만원의 수고비를 받는 경우는 63명(27.16%), 72명(31.03%)이 31~50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있었고, 수고비를 전혀 안받는 경우가 38명(16.38%),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경우는 9명(3.88%)이었다. 손자녀를 돌보기에 대해 손자녀의 부모와 상의하는 시간은 매일매일 상의하는 경우가 96명(41.38%)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거의 상의하지 않는 경우도 39명(16.81%)이었다.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와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단일 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 항목의 변수들의 분포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범위를 분석하였고, 정규성 검정 결과 정규분포를 만족하고 있다<Table 1>. 그리고 이들 변수들이 서로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경제적 요인과 건강상태, 양육효능감,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건강문제, 생활사건경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가설모형의 검정

<Table 1> Univariate summary statistics and test of univariate normality for continuous variables (n=232)

Variables	Mean	SD	Range	Scale parameter		Test of normality	
				Skewness	Kurtosis	W	p-value
Health status	3.17	0.75	1-5	-0.16	-0.15	0.968	0.000
Healths problem	2.99	0.65	1-5	-0.39	0.13	0.987	0.029
Monthly income	4.68	2.24	1-9	0.26	-0.82	0.951	0.007
Reward	3.25	1.36	1-6	-0.18	-0.64	0.915	0.000
Life events	2.05	0.67	1-5	0.87	0.61	0.945	0.000
Caring stress	2.81	0.74	1-5	-0.30	-0.61	0.980	0.002
Caring efficacy	2.63	0.37	1-4	0.06	0.05	0.992	0.242
Life satisfaction	2.90	0.49	1-5	0.12	0.67	0.987	0.034
Quality of life	3.16	0.48	1-5	-0.08	0.77	0.986	0.019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major variables (n=232)

Variables	Health status	Health problem	Monthly income	Reward	Life event	Caring stress	Caring efficacy	Life satisfaction
Health problem	-0.589**							
Monthly income	0.152**	0.006**						
Reward	0.068	-0.071	0.272**					
Life event	-0.243**	0.315**	0.004	0.058				
Caring stress	-0.322**	0.336**	-0.068	0.081	0.408**			
Caring efficacy	0.241**	-0.195**	0.105	-0.029	-0.318**	-0.382**		
Life satisfaction	0.530**	-0.373**	0.199**	0.129**	-0.327**	-0.337**	0.361**	
Quality of life	0.560**	-0.543**	0.213**	0.121**	-0.341**	-0.397**	0.408**	0.782**

* |T| > 1.96 ** |T| > 2.58

<Table 3> Fit index of hypothetical model

Fit index	$\chi^2(p\text{-value})$	df	GFI	AGFI	RMR	SRMR	NFI	NNFI
Hypothetical model	14.466 (P = .107)	9	.986	.932	.044	.035	.983	.972

● 모형의 부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적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검증 결과 χ^2 통계량은 14.466(p=.107)로 나타났다. 우선 χ^2 이 큰 값을 가지면 χ^2 의 p값이 .05보다 작은 기각 결과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설적 모형과 실제자료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도 적합도 지수(GFI), 조정부합치(AGFI), 원소간 평균자승잔차(RMR), 표준부합치(NFI), 비표준부합치(NNFI) 등의 부합지수들의 결과는 가설적 모형이 실제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가설모형의 요인계수와 다중상관자승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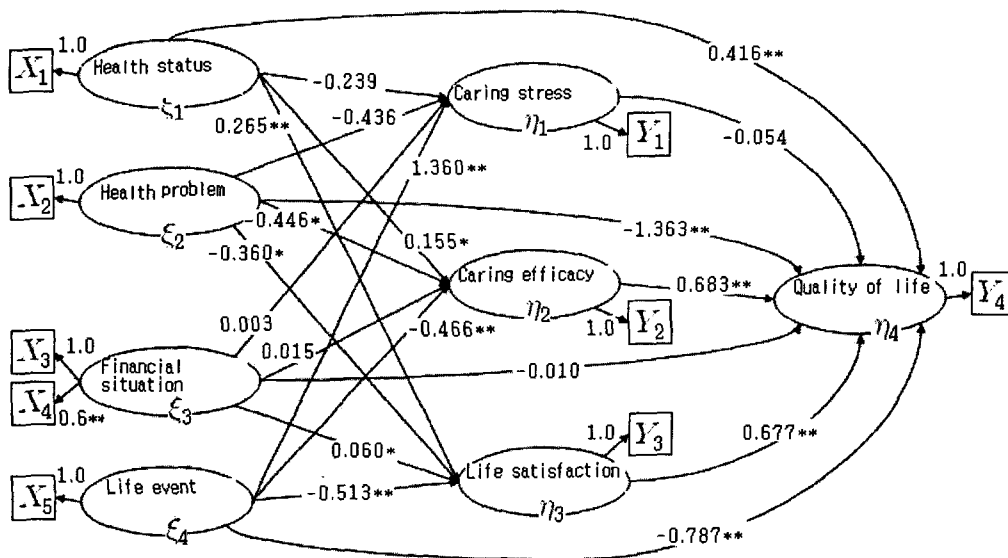
가설모형에서의 특정 수의 추정치와 t값, 각 내생변수의 다중상관계수(SMC) 및 가설적 모형의 경로도는 다음과 같다 <Figure 1>. 가설모형 검증결과 경제적 여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지나치게 낮아($\gamma=.003, t=.051$), 수정모형에서는 이 경로를 제외하였다. 또 경제적 여건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도 가설 모형($\gamma=.015, t=.767$)에서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지나치게 낮아 기각되었을 뿐 아니라 수정모형에서는 이 경로를 제외하였다.

수정모형의 검증

● 수정모형의 부합도 검증

모형의 수정과정은 모형의 간명성(parsimony)과 부합도(goodness of fit)를 높이기 위한 통계적 유의성과 이론적인 의미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루어졌으며 가급적 모수를 절약하면서 간명한 모형으로 자료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수정할 때 있어서 T값이 매우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로를 삭제하여 모형의 간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부합도를 유지시키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수정모형을 얻었다. 모형의 식별력을 저하시키는 양육스트레스 도구, 양육효능감 도구, 생활만족감 도구, 삶의 질 도구, 수고비의 분산을 0으로 제한하여 모형의 식별력을 높였으며,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였는데, 경제적 여건에서 양육스트레스로의 경로, 경제적 여건에서 양육효능감으로의 경로이다. 결과적으로 가설 모형에서 5개의 오차 분산을 제한하고 2개의 경로를 제거하여 수정모형을 확정하였다<Table 4>.



<Figure 1> Hypothetical model

<Table 4> Fit index of modified model

Fit index	$\chi^2(p\text{-value})$	df	GFI	AGFI	SRMR	NFI	RMSEA	CN
Modified model	15.492 (P = 0.161)	11	0.985	0.940	0.037	0.982	0.042	35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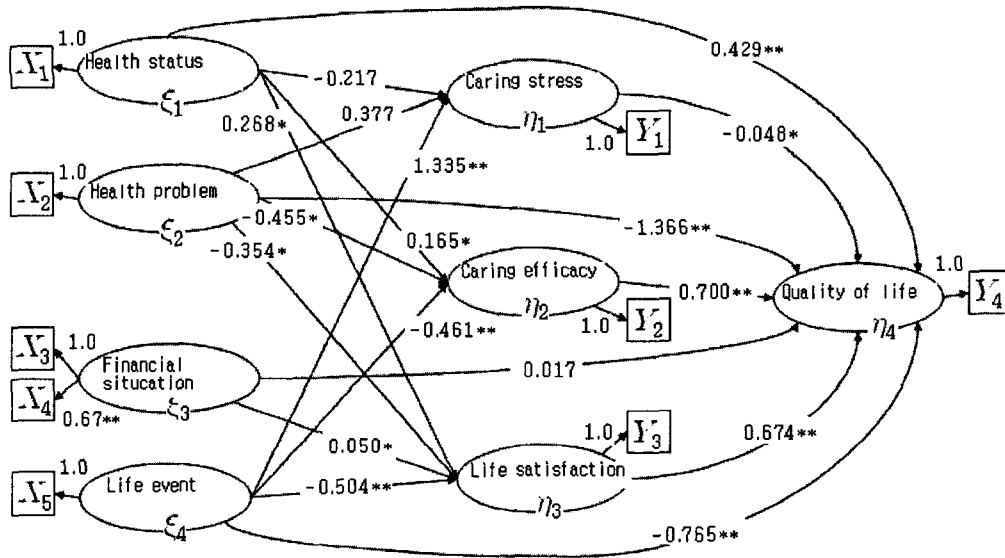
<Table 5> Effect of coefficient and SMC in modified model

(n=232)

Variables	Direct effect(T)	Indirect effect(T)	Total effect(T)	SMC
Caring stress				0.419
Health status	-0.217(-0.863)	-	-0.217(-0.863)	
Health problem	0.377(0.570)	-	0.377(0.570)	
Life event	1.335(3.739)**	-	1.335(3.739)**	
Caring efficacy				0.425
Health status	0.165(2.140)*	-	0.165(2.140)*	
Health problem	-0.455(-2.183)*	-	-0.455(-2.183)*	
Life event	-0.461(-3.424)**	-	-0.461(-3.424)**	
Life satisfaction				0.467
Health status	0.268(2.540)*	-	0.268(2.540)*	
Health problem	-0.354(-2.544)*	-	-0.354(-2.544)*	
Financial situation	0.050(2.414)*	-	0.050(2.414)*	
Life event	-0.504(-3.247)**	-	-0.504(-3.247)**	
Quality of life				0.639
Health status	0.429(3.401)**	0.307(2.267)*	0.736(4.311)**	
Health problem	-1.366(-4.438)**	0.575(1.717)	-0.791(-3.138)**	
Financial situation	0.017(0.703)	0.034(2.310)*	0.051(2.042)*	
Life event	-0.765(-2.740)**	-0.727(-2.797)**	-1.492(-3.084)**	
caring stress	-0.048(-1.960)*	-	-0.048(-1.960)*	
caring efficacy	0.700(2.672)**	-	0.700(2.672)**	
Life satisfaction	0.674(5.933)**	-	0.674(5.933)**	

* |T| > 1.96

** |T| > 2.58



<Figure 2> Modified model

● 수정모형의 인과관계경로추정 및 직간접, 총효과

변수들간의 영향은 T값으로 가설화된 경로 등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검정(T 값이 2보다 큰 것, p<.05)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설적 경로계수는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된 계수를 이용하였다<Table 5>.

가설모형에서 효과계수가 낮았던 경제적 여건과 양육스트레스, 경제적 여건과 양육효능감의 경로를 제외하고 수정한 모

형의 가설경로도를 살펴보았다<Figure 2>. 가설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강문제이다. 건강문제는 삶의 질에 직접효과계수가 가장 클 뿐 아니라, 양육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쳐 양육효능감과 생활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효과의 값도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는 생활사건 경험, 양육효능감, 생활만족도, 건강상태의 순이다. 특히 양육스트레스보다는 양육효능감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가설검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생활사건 경험의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했던 건강상태($\gamma=-.217$, $t=-.863$), 건강문제($\gamma=.377$, $t=.570$)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은 예측한 바와 같이 건강상태, 건강문제, 생활사건 경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양육효능감($\gamma=.165$, $t=2.140$), 건강문제($\gamma=-.455$, $t=-2.183$), 생활사건 경험($\gamma=-.461$, $t=-3.424$)도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건강상태($\gamma=.268$, $t=2.540$), 건강문제($\gamma=-.360$, $t=2.558$), 경제적 여건($\gamma=.050$, $t=2.414$), 생활사건 경험($\gamma=-.504$, $t=-3.247$) 모두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직접효과를 보면 건강상태($\gamma=.429$, $t=3.401$), 건강문제($\gamma=-1.366$, $t=-4.438$), 생활사건경험($\gamma=-.765$, $t=-2.740$), 양육효능감($\gamma=.700$, $t=2.672$), 생활만족도($\gamma=.674$, $t=5.933$) 등의 변수가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상태($\gamma=.736$), 건강문제($\gamma=-.791$), 경제적여건($\gamma=.051$), 생활사건경험($\gamma=-1.492$), 양육스트레스($\gamma=-.048$, $t=-1.960$) 등은 간접효과를 나타내어 총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가설보형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건강상태, 건강문제, 경제적여건, 생활사건경험을 외생변수로 하고,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생활만족도, 삶의 질 등을 내생변수로 하는 8가지 이론변수가 이용되었다. 이들 변수의 경로를 공변량구조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외생변수에서 내생변수를 거쳐 최종 내생변수인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이르는 19개의 가설적 경로를 검정한 후 가설모형에서 효과계수가 낮았던 경제적 여건과 양육스트레스, 경제적 여건과 양육효능감의 경로를 제외하고 모형의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7개의 경로를 검정한 결과 수정모형의 변수가 63.9%가 설명되어지고 있으므로 보다 관련이 깊은 변수들이 선택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구조분석은 다변수의 동시검증이 가능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활용하여 측정오차를 제거함으로써 이론개발과 이론검증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분적인 상관관계나 인과관계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들이 공변량구조모형 내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상이하게 나와질 수도 있다. 또한 모형을 찾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무수한 모형이 선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변량구조분석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철저한 문헌고찰과 이론적 틀을 근거로 하여 가능한 수정모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시 되어서인데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함께 선행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견고한 가설모형을 제시하였다.

각 변수들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과의 유의한 경로는 건강상태, 건강문제, 생활사건경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생활만족도 등의 변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낮을수록, 생활사건경험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의 중심개념인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강문제이다. 건강문제는 삶의 질에 직접효과계수가 가장 클 뿐 아니라, 양육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쳐 양육효능감과 생활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효과의 값도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노년기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면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는 시기로서 다른 연령층 보다 건강에 대한 요구가 크며, 이에 따라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Park et al., 1998). Tempkin, Tempkin & Goodman(1997)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80% 이상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적인 질병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특히 신체기관의 노화, 기능수준의 저하로 인한 활동제한, 실금, 정서상태의 변화, 기억, 지남력, 언어, 지적, 지각력 등의 인지기능의 전반적 손상, 낙상 등으로 인한 골절, 부동, 활동력의 저하, 감각 손상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하면서 최적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하된 기능수준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지난 1년간 겪었던 실질적인 건강문제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된 것을 볼 때 이들을 위한 특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를 보면, Hawrani(1991)는 노인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차 예방을 중심으로 환경관리 및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노인의 문제로 인지적 손상과 낙상 등으로 인한 골절, 우울 등의 정서 변화가 주된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 역시 교육적인 접근으로 노인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자가 추가적인 질문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것에서도 자명하게 드러났다. 즉, 건강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54.31%가 참여하겠다고 하였으며, 희망 프

로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라 할지라도 손자녀의 건강관리보다는 노인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가 53.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족 전체 건강관리에 대한 것이었다.

그 외에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생활사건 경험, 양육효능감, 생활만족도, 건강상태의 순이다. 특히 양육스트레스보다는 양육효능감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생활사건 경험의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했던 건강상태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자신의 지각된 건강상태를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건강문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건강상태 변수와 마찬가지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와 실질적인 건강문제를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여건은 양육스트레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은 예측한 바와 같이 건강상태, 건강문제, 생활사건 경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는 달리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손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양육효능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일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각된 건강상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건강문제가 적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 고통스러운 생활사건의 경험은 양육효능감을 저하시킴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여건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양육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에 대해서 Lee, J. H.(2005)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이행이 높다고 하였고, Choi(2004)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관리, 사회적 지지 등의 변수 가운데서도 건강증진행위가 전체별양의 35.1%의 설명력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의 건강관련 문제가 삶의 질을 가장 많이 예측할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본 연구 대상자들에게 적용한다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일수록 양육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이로서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회적 지원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으면 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E. Y., 2005). 이처럼 양육효능감은 손자녀를 돌보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중요시되고 있는데, 양육효능감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세 번째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볼 때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취업도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요즘 이들이 손자녀를 잘 돌보고 건강한 아동으로 양육하며 조모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원은 보육시설의 확충이나 재정적 지원 외에도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와 고충을 듣고 그에 대한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망의 확립을 의미할 수 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건강문제 다음으로 큰 직접적인 효과를 미친 변수가 생활사건의 경험인데,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내용으로서의 생활사건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중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활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신뢰할만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제와 이러한 지원체제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지원이 증가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양육스트레스의 감소는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질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건강문제, 생활사건경험, 양육효능감, 생활만족도 등의 변수가 직접효과뿐 아니라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스트레스는 직접효과는 없으나 간접효과를 나타내어 총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여건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쳐서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양육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역할의 제한성, 사회적 고립, 재정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Kelly, 1993). 즉 과거에는 조모와 손자녀의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조모는 손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생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자녀세대가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조모가 손자녀의 일차 양육자가 되는 일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되고 있다(Fuller-Thomson, Minkler, & Driver, 1997). 그러나 손자녀를 돌보는 모든 조모가 그런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 조모는 손자녀를 돌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충만함과 새로운 의미 그리고 목적을 발견하기도 하고 예측했던 양육스트레스는 조모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 역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어머니 세대의 내리사랑에 대한 의미로 여겨진다. 경제적인 여유로움이나 경제적인 부족함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과거부터 그랬듯이 가족 내에서 조모는 '조용한 구원자', '이

차적 방어선', '안전망'으로 표현될 정도로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가족이 어려운 일이나 예기치 못한 변화에 직면했을 때 안전장치 혹은 충격완화장치의 역할을 감당해왔다(Kim, M. H., 2005). 이러한 역할은 여성의 경제활동,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더욱 일반화되고 그 개입의 정도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조모인 조모가 성인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였던 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이 보람이 있고 생산적이며 전체 사회에 통합된 생애 단계가 될 수 있는 세대통합형 프로그램의 개발로 완성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려는 신세대 노인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고유의 가족주의와 효규범의 현실적 적응을 통해 노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학제적인 접근과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대하여 소수의 선행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시행되어져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상관관계를 밝히는 정도로 진행되어 있고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들을 밝혀내어 삶의 질 이론개발 및 이 분야의 지식체 확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모 혹은 친조모 중 참여를 허락한 모든 조모를 대상으로 232명이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이론변수는 8개로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생활만족도, 삶의 질 등 4개의 내생변수와 건강상태, 건강문제, 경제적 여건, 생활사건 경험 등 4개의 외생변수로 구성되었는데 높은 신뢰도(Cronbach's $\alpha=0.79\sim 0.93$)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 8개의 이론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9개의 측정변수가 포함되었다. 자료는 서술적 통계분석을 위한 SAS 9.13 패키지 프로그램과 공변량 구조분석을 위한 LISREL 8.5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모형의 부합도를 검증한 결과 실제자료와 비교적 높은 부합도를 보였다. 또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도 63.9%로서 비교적 잘 설명된 모형임이 증명되었다. 모형의 수정을 위하여 실제자료를 가설 모형에 적용한

결과 추정치가 .05 이하인 경제적 여건과 양육스트레스, 경제적 여건과 양육효능감 사이의 경로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경제적 여건과 삶의 질은 선행연구에서 그 영향력이 높다고 보고되었을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제거하지 않았다. 수정모형의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대한 개념들은 실제자료와 잘 부합됨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스트레스를 내생변수로 하는 4개의 가설 중 건강상태와 건강문제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것이라는 것은 기각되었고 경제적 여건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을 뿐 아니라 수정모형에서는 이 경로를 제외하였다. 생활사건 경험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양육효능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4개의 가설 중에서는 건강상태, 건강문제, 생활사건 경험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을 것이라는 3개의 가설은 지지되었으나, 경제적 여건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고 수정모형에서는 이 경로를 제외하였다. 생활만족도를 내생변수로 하는 4개의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고,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7개의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직접효과를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이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완전히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와 환경적 요인들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삶의 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있어서 건강문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건강문제는 삶의 질에 직접효과계수가 가장 클 뿐 아니라, 양육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쳐 양육효능감과 생활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효과와 값도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생활사건 경험, 양육효능감, 생활만족도, 건강상태의 순이다. 특히, 건강상태와 건강문제는 양육스트레스 보다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으로 볼 때,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문제에 대한 간호중재가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자기효능감 중재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 Ahn, J. Y. (2001).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entler, P. M. (1995). *EQS structural equations program manual*. Encino, CA : Multivariate Software.
- Choe, H. S. (2001).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s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Choi, Yeon-Hee. (2004). Health-promoting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of solitary elderly in rural areas. *J Korean Soc Health Edu Promot*, 21(2) 87-100.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ongailbo (2001).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10521>
- Dongailbo (2002).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20122>
- Floyd, F.,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s: Lo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 Fuller-Thomson, E., Minkler, M., & Driver, D. (1997). A profile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Gerontologist*, 34(2), 206-216.
- Hawrani, P. (1991). Preventing health problems after the age of 65. *J Ggerontol Nurs*, 17(11), 20-25.
- Kelly, S. J. (1993). Caregiver stress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 Nurs Scholarsh*, 24, 331-337.
- Kim, E. Y. (2005). *The pat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dysfunctional discipline practice to child's adjustment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 E. (2002).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poverty and its influential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im, M. H. (2005).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f grandmother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iduk University, Gyeongju
- Kim, M. S. (2005).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among mothers: the case of those with preschoolers and school-ag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Kim, S. H. (2005).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on young children's resilience. *J Early Childhood Edu*, 25(4), 191-209.
- Lee, S. H. (2005) *A study on the burden and the reward of grandparents who are raising their grand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 Lee, S. H., & Lee J. S. (2002). A concept analysis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1(4), 588-595.
- Lee, J. H. (2005). The relationship of depression, self-esteem and health-promoting behaviors in the elderly women who live alone.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4(2), 109-118
- Lee, S. Y., Kim, S. W., Sun, W. S., & Cho, N. J. (2001). Health status for the elderly living in a home for the aged. *J Korean Geriatr Soc*, 5(3), 240-249.
- McCubbin, H. I. (1979). Integrating coping behavior in family stress theory. *J Marriage and Fam*, May, 237.
- Oh, J. (2006-a). Health information needs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J Parental child health*, 9(1), 43-54.
- Oh, J. (2006-b). Care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in employment mother's home.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2(3), 295-303.
- Park, E. S., Kim, S.J., Kim, S. I., Chun, Y. J., Lee, P. S., Kim H. J., & Han, K. S. (1998). A Structural model for quality of life in elderly. *J Korea Gerontol Soc*, 8(3), 37-61.
- Tempkin, T., Tempkin, A., & Goodman, H. (1997). Geriatric rehabilitation. *Nurse Practioner Forum*, 8(2), 59-63
- Yoo, A. J. (1994). *Child rearing*. Seoul: Mooneumsa
- Yoon, J. S., Kook, S. H., & Lee, M. S. (1998). A preliminary study on Korean version of the SmithKline Beecham quality of life's sca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i*. 37(2), 290-294.